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10b, 히브리서 11:1-12:3: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2부)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저자의 사례 목록은 인상적인 사례의 축적으로 마무리되며, 압축되고 요약되어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의 끝없는 행진에 대한 생생하고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여전히 말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통해 왕국을 정복하고, 정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끄고, 칼의 입에서 벗어나고, 약함에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강해지고, 외국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여성들은 부활로 죽은 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받기 위해 풀려나는 것을 거부하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과 구타와 사슬과 투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잘렸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배고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황무지와 산과 동굴과 땅의 틈새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와 별개로 목표에 도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예들의 축적은 두 부분으로 깔끔하게 나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에서 저자는 사사기 전반에 걸친 이름과 사건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잠재적으로 말라기까지를 아우르며, 적어도 역사서를 통한 믿음의 성취에 대한 일종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 35절에서 38절까지 저자는 헬레니즘화 위기의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순교자들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여러 전설을 언급하는 것 외에도 정경 역사를 완성합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에서 설교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이롭거나 기적적인 일로 여길 만한 것을 성취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고 죽음으로부터 적시에 구출을 경험하며, 심지어 시체를 소생시키는 일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35절 b-38절에서 설교자는 세상의 눈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한 패배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32절에서 35절 a의 영웅들만큼이나 승리하고 명예로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34절은 신자들의 업적을 매우 간결하게 모아놓았습니다.

그룹 1은 군주제와 관련된 예를 주로 떠올리는 듯합니다. 왕국을 정복한 사람들은 사사들과 다윗의 군사적 성공을 떠올립니다. 정의를 확립하거나 성취하는 것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통치와 열왕기 상 10장에서 솔로몬의 통치의 특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는 문구는 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약속한 구체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그의 왕좌에 앉을 상속자를 약속받았고, 신이 그 왕좌를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목록의 다음 세 가지 업적은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신자들에게 다니엘이 다니엘 6장에서 그에게 정해진 처형 방식에서 구출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불의 권세를 끄는 자들은 다니엘 3장에서 읽은 것처럼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후 불길에 무사히 나온 다니엘의 세 동료로 떠올릴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충성심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계속 드리는 긍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첫 번째 계명을 타협 없이 고수한 데서 드러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사람은 35절 하반절에서 36절에 언급될 순교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에 의한 의롭다고 인정이 이 세상에서 모든 저 세상에서 모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적대감에 맞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날에서 벗어난 자들은 많은 구약성경 유명인사들에게 해당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11:37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약함에서 강해진 자들은 먼저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확고한 의지로 위대한 행위를 이룬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약하다고 여겨지지만 위대한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적들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얻은 여주인공 유딧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 세력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전투에서 강해진 사람들과 외국 군대를 무찌른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원전 166년경에 시작된 마카비 반란에서 하스모네아 가문과 그들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에게 적용되는 설명일 뿐입니다. 사사들은 다른 나라의 군대나 진영을 무찌르고, 다윗과 유다 마카비와 그의 가문의 지휘 아래 싸운 게릴라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신자들은 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소수자가 다수자를 이긴다는 이 증언은 그들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한 불신하는 세상의 적대감에 맞서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적절하고 격려적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승리한 인물들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35절 후반부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성들은 부활로 죽은 등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받기 위해 석방을 거부함. 이 구절의 전반부는 새로운 주제인 여성을 소개하면서, 앞서 언급한 것과의 연속성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냅니다. 저자는 여기서 부활보다 더 적절하게 소생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받은 여성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열왕기상 17장)이나 엘리사를 통해 순암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하나님(열왕기하 4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데, 이 주제는 지금까지 찬사에서 다루어 온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 즉 이 세상의 삶으로 다시 소생되어 다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원한 삶으로 부활한 사람들과 약간 대조적으로 제시합니다. 고문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자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기원전 164~160년, 아니 기원전 167~164년의 헬레니즘화 위기 동안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고통을 겪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카베오기 하권 6장 18~7절 42절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고, 이어서 마카베오기 제4권 5장~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신과 신의 법에 대한 헌신의 사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과 그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실함의 모범적인 본질은 하 마카비서와 하 마카비서에서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 소개됩니다.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그리스 도시로 재건된 후 예루살렘에서 긴장이 고조된 이후에 설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서 이 헬레니즘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셀레우코스 군주 안티오쿠스 4세와 그의 지역 유대 관리들은 점점 더 억압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이 땅의 전통적인 유대 관습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카비 상권에서 할례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 아기와 함께 처형당한 여성과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 사본을 숨기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유대인이 처형당한 것을 읽습니다. 마카비 하권 6장과 7장의 저자와 마카비 하권에서 파생된 작품인 마카비 하권 4장의 저자는 9명의 순교자, 엘르아살이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 일곱 형제의 무리, 그리고 일곱 형제의 어머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독실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 앞에 끌려갔고, 그는 그들이 외국의 신에게 바쳐진 돼지고기 한 입만 먹는다면 그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고기는 토라 준수에 대한 이중의 타격으로, 그 자체로 더럽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이 인물들은 한 번에 하나씩 고문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석방을 거부합니다.

먹고 고문에서 풀려나는 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가장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히 마카비서 2장 7절에서 그들이 눈앞에 두고 죽어가면서 외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그것은 그들이 고통을 견디고 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적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죽는다. 세상의 눈에는 부끄러운 죽음을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과 수치를 견딘다 .

그들은 이러한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편안함과 승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여정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될 예수와 함께,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더 나은 부활로 묘사됩니다.

11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나머지 예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수치와 적대감을 견뎌낸 사람들의 회사를 확장합니다. 수치나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약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결합하는데, 각각은 극도로 소외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며 사회의 손에 모든 형태의 불명예에 노출된 집단의 전반적인 그림에 기여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조롱과 구타와 사슬과 투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찔렸습니다. 그들은 칼로 도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을 입고 염소 가죽을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굶주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며,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황무지와 산과 동굴과 땅의 틈새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마도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전통을 숙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조롱과 구타를 당하고, 자주 투옥되어 족쇄나 사슬에 묶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약성서 자체에서는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 유대인의 전설이 생겨나서 빠진 세부 사항을 보충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의 삶, 2권에 나오는 전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역대기 하권 24장에서 알려진 대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삶과 이사야의 승천으로 알려진 텍스트는 모두 이사야가 돌로 찔렸다는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서 알려진 예언자 우리아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구절은 문명의 변두리에서 살았던 삶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미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옷과 자주 머물렀던 곳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또한 헬레니즘화 위기 동안 더러움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충실한 유대인들의 아포코레 시스, 즉 산으로 향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언급된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옷은 분명히 그들을 사회의 변두리에 두었습니다. 린넨 옷은 장인과 시장의 상인에게서 나왔지만, 동물 가죽은 입는 사람을 질서 있는 사회 밖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 질서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권력자들과 상당한 긴장과 적대감을 경험합니다.

이 설교의 수신자들은 자신의 경험, 사회에서 자리를 잃은 것, 하나님의 더 큰 백성의 맥락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항상 이 세상에서 집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집에 있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마지막 1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사회 내에서 집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이도록 명확하게 촉구받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구절의 중간에 흥미로운 주석을 삽입하는데,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형편없이 대우받을 때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배적인 문화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서 안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로마 문화입니다. 대신 외부 세계는 그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신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이 한 분의 신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로 한 헌신의 결과로 그들에게 닥친 비난과 학대가 그들 자신의 수치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수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저자는 이 모든 믿음의 영웅 퍼레이드가 경험한 한계와 수신자 자신이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이전의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된 선물을 받았지만,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노력해 온 영원한 상속에 대한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고향이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 으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이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직 약속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저자는 그들에게 비난이나 수치를 던지지 않습니다. 많은 신뢰하는 충실한 고객을 약속된 하늘 고향의 혜택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련에는 예수의 희생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합니다 . 족장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동일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랐지만,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서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까지 열릴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40의 더 나은 것은 이 설교에서 더 나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약속에 기초한 더 나은 언약의 더 나은 중재자이시며, 듣는 사람들을 더 나은 나라에 있는 더 나은 소유물로 인도하십니다. 이 결론적인 문장은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올 권고에 특별한 긴박감을 더합니다. 수신자들은 11장에서 찬양하는 믿음의 모범들보다 목표에 더 가까이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시키는 수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셨으므로 그들의 감사와 충성심은 더욱 크고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마찬가지로 더 큼니다. 그들은 이 릴레이 경주의 맨 마지막에 이미 경주를 훌륭하고 명예롭게 달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넘겨진 배턴을 떨어뜨릴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저자는 마침내 믿음의 가장 좋은 행동의 본보기인 예수에게 도달하고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릴레이 경주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칭찬하는 것에서

다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영역과 그 도전을 처리한 사람들의 대열에 자리를 잡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많은 구경꾼들이 있으니, 우리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얹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업신여기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에게서 이처럼 자기에게 적대적인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자는 여기서 경주를 달리는 운동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지만, 수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학대와 소외 때문에 오히려 장갑을 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는 청중이 제자도를 운동 경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돕음으로써, 이 여정의 끝에서 명예로운 승리의 전망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웃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불명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압력에 직면하여 결승선까지 끈기 있게 버티는 것으로 불명예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는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 생각하면서 끈기 있게 버티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증인의 구름은 구경꾼의 구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앙의 미덕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이 설교의 수신자들이 이제 경주를 어떻게 달릴 것인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스탠드는 뚱뚱한 스포츠 팬들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과거 메달 수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모두.

명예의 법정은, 그 승인이 중요하고, 그 자신의 과거 성공이 경쟁자들의 실패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 법정은 창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신앙의 영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중들은 자신의 삶에서 인내가 수신자들 중 모든 남녀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달리도록

격려하며, 용기라는 더 큰 주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결의에 호소합니다.

용기는 고대 세계에서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종종 개념화되었습니다. 전장은 공포, 고통,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들의 장소였지만, 명예로운 사람은 도시 국가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그러한 고난에 직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견뎌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의무를 유기하고 신성한 의무와 신뢰를 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이웃의 맹공에 직면하여 다소 잔혹한 이 경쟁에 임하는 영웅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공포, 고통, 공포를 견뎌내라고 촉구합니다. 경쟁의 이미지는 영웅들을 이교도 이웃의 반대에 맞춰서, 비난과 학대에 직면하여 인내와 기독교적 헌신과 증거가 고귀하고 용감한 길이 되는 반면, 외부 세계의 수치스러운 기술에 굴복하는 것은 비열하고 비겁한 길이 됩니다. 이것은 저자가 비난을 계속 견뎌내는 것을 명예로운 행동 방침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쿠데타입니다.

설교자는 경주를 하려면 사실상 부담 없이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신자들에게 모든 무게, 그들을 얹어매고 앞으로 잘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합니다. 영웅의 과거 상황에서 그들의 명성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거나, 마치 그대로 젊어지려고 한다면 넘어질 수 있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 위해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존재는 무게가 되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몸을 해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달리는 것을 완전히 멈추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무게를 벗어던지고 계속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그것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갇혔을 때 무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부분을 선택하고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무게가 있기 전에,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운 죄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온 깨달음으로 그들에게 드러난 죄였지만,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모든 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이미 기독교 단체와의 공개적인 교제에서 물러섰다면, 그들의 경우, 자신의 명예나 새로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새로운 우려로 인해 다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자가 그런 신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계속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달리셨던 길이며, 이 연결은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달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예로 소개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목표를 향한 길에서 반대에 부딪히신 방식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인내하는 모범을 제공하며, 따라서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를 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로 번역하고 있으며,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 그러하듯이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스어에는 소유대명사 *our*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번역은 예수가 11장 1절에서 시작된 믿음에 대한 찬사에서 저자가 행한 믿음의 절정의 본보기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합니다. 예수는 믿는 이들보다 앞서 달리는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저자가 6장 20절에서 예수를 우리의 선구자로 논의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인용문에서 저자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했듯이 많은 아들과 딸의 무리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를 선구자라고 부르는 또 다른 곳입니다.

개척자로서, 예수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겪으며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기쁨은 그의 길을 따르는 많은 아들과 딸들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주에서 비할 데 없는 영예의 자리로

높으신 것은 세상의 의견에 대한 그의 태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끝은 그가 걸었던 대로 걸으면 많은 아들과 딸들도 영광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형태의 신뢰나 믿음을 보여 주셨고, 이 예들의 목록에서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은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다른 누구보다 먼저 가셨고 더 멀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간결하고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업신여기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궁극적으로 굴욕과 수치심의 측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었고,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들을 대중의 불명예에 내세우는 것이었고, 사실상 그들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인간 광고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치심을 멸시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셔야 했던 일의 핵심이며 11장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순교자들의 믿음의 행보에서 수치심을 멸시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회중의 과거 모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마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험을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자체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여기서 부끄러움을 외부인이 고귀한 것과 부끄러운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민감성으로 간주합니다. 외부인이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는 길과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무지는 무엇이 존경스러운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그들의 능력 자체를 왜곡합니다. 이 기간 내내 철학적 담론에서 비슷한 요점이 제기됩니다.

플라톤, 세네카, 에픽테토스는 모두 독자나 제자들에게, 미숙련자, 즉 비철학자의 의견에 대한 관심은 기껏해야 산만함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 일반적으로 덕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탈선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모범은 이 시점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합니다. 그들 역시 수치심을 계속 멸시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기독교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자신의 경주에서 좌나 우로 흔들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오직 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친 신앙 공동체의 승인뿐입니다. 5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의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치기 위해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들을 위해 겪은 죽음이며, 따라서 언급될 때마다 그들의 경멸과 혐오보다는 감사와 존경을 불러일으켜야 할 죽음입니다. 후원자, 예수와 같은 중재자가 겪은 고통이나 고난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충성심과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후원자의 그러한 자기 투자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명예 비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원자가 수혜자에게 투자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따라서 더 큰 감사와 상호 투자 및 충성을 위한 원인이 됩니다. 예수는 고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또는 저자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어로 전치사는 *anti*, 즉 그에게 주어진 기쁨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해설가들 사이에서 전치사 *anti*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신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때문에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에게 놓인 기쁨 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이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제 생각에 증거의 균형은 그 때문이라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선, 저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을 제쳐두셨는지에 대한

암시를 하지 않지만, 저자는 설교 전반에 걸쳐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로 그리스도에게 온 기쁨, 특히 그의 승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처음 네 구절에서 이미 선포되었고 저자는 설교 전반에 걸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 놓인 이 특별한 기쁨은 여기에서도 직접적인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수치를 멸시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이 고통과 치욕을 참으신 그 앞에 놓인 기쁨과 동의어가 되고 이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같은 전치사가 12장 16절에서 몇 구절 뒤에도 나옵니다.

에사우의 어리석고 불명예스러운 선택은, 다시 말해 ante,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만아들로서의 상속 재산을 팔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선택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 ante, 영원한 명예를 위해 일시적인 고난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용감한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과도 일치합니다. 즉, 어떤 불명예나 고통을 그 대가로 복종함으로써 칭찬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하고 고귀한 대상을 위해 전치사 ante를 사용합니다.

12:3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범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죄인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쳐서 영혼이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인들로부터 적대감과 모순에 직면하지만, 그들의 레슬링 경기는 저자가 4절에서 지적하듯이 예수님이 견뎌내신 것보다 훨씬 덜 잔인합니다. 죄와의 레슬링 경기에서 여러분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저항하지 않았습시다.

죄인들의 손에 훨씬 더 큰 적대감, 고통, 굴욕을 참으신 예수의 인내는 그가 대신해서 그런 일들을 겪으신 사람들이 경주를 달리는 데 지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듣는 사람은 상호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치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무한히 더 많은 것을 참아내신 분과의 믿음을 깨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익을 붙잡고 그들의 은인을 붙잡기 위해 견뎌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쏟아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쏟아 부으셨듯이요. 예수님께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집단 경계를 강화하고 신자들을 이웃의 의견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수난과 죽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잘못된 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인으로부터 적대감을 경험한 예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청중이 예수와 더 긴밀하게 동일시하는 계기가 되고, 따라서 예수의 고난의 최종 결과와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동일시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 자신의 모범은 청중에게 비난과 소외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저자가 청중을 위한 목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수사적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례에서 얻은 증거와 모방의 감정에 대한 호소, 즉 다른 사람이 누리는 성공이나 성공의 열매를 스스로 얻고자 하는 갈망의 조합입니다. 역사적 사례에서 얻은 증거는 첫째, 충실한 인내의 길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둘째, 그것이 참으로 명예로운 기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예수의 사례에서 그것이 참으로 신의 영역에서 명예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대한 이 찬사는 또한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명예와 칭찬을 경험하게 한 자질이나 업적을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원한다는 점에서 모방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지중해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심리학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됩니다. 저자는 특히 수신자들이 직면한 도전에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난 신앙의 초상을 만들어내고, 저자는 이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신의 시야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시야에서도 영예를 얻었음을 보여주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비슷한 수단으로 비슷한 영예를 얻으려는 그들의 마음 속의 야망을 다시 일깨우거나 적어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수신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역으로의 순례를 끈기 있게 견뎌내고, 사회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공간적으로는 뒤로 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지 말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많은 순교자, 그리고 역사 전반에 걸쳐 소외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자신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말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로운 운명을 공유하기 위해 불신자들 앞에서 불명예를 감수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은 설교자가 다루는 청중의 배경을 훨씬 넘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 장은 모든 세대에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본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형적인 하루의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당신에게 더 실제적입니까? 세상적인 관심사에 의해 부과된 의제가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이차적인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부과된 의제입니까? 당신의 노동에 대한 유형적 보상(재산, 집, 어느 정도의 사치, 미래를 위한 재정적 안정)이 더 실제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무형적 보상이 더 실제적입니까? 우리가 시간, 재능,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이 연속선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찬사는 또한 믿음이 우리의 야망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지 않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마치 그들의 삶과 내세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럴까요?

신약성서의 저자들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 심판의 경고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응답하도록, 즉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동을 명령하는 신뢰로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각자가 몸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선하든 악하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뿌리를 내린 시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확실히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의 고국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따라 우리의 욕망, 야망, 가치관, 우선순위를 재형성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상만을 바라보는 목소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하면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재사회화하면서, 이웃과 심지어 우리 가족조차도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통합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양육과 세속적 동료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믿음직한 구성원이 되고, 약속된 선물을 누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도록 길러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화를 살아가면서 이 운명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는 그러한 운명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부, 명예, 권력의 삶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재물을 위해 그의 약속을 멸시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의 후회와 뉘우침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태어나고 그 상을 우리의 진정한 운명으로 추구하는 데 온전히 투자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